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참 고 자 료**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담당과장 담 당 자	장성길 과 장(044-203-5940) 이채원 서기관(044-203-5941)

한 · 캐 보호무역주의 대응 공조 강화

- 7.18(수) 캐 외무장관(Chrystia Freeland), 캐 연기금 자산운용 회장(Mark Machin) 면담 -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 18.(수, 한국시간)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외무장관**과 **마크 마신(Mark Machin) 캐나다연기금(CPPIB)*** 회장을 각각 면담하고, 자동차 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과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캐나다 연금자산운용기관, 세계 5위규모 연기금)

○ **프리랜드** 외교장관과는 **자동차 232조 조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미중 통상갈등**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차원에서 양국 공조방안을 찾았다.**

○ **마크 마신(Mark Machin) 캐나다연기금(CPPIB)** 회장과는 캐나다연기금의 우리나라 투자 확대, 제3국 공동투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외무장관 면담]

□ **자동차 232조**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되었음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설명했다.

○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장관은 자동차 232조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별도 고려 필요**성과 **자동차** 232조 관련 **주요 이해당사국간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관련, 프리랜드 장관은 조만간 협상 재개가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협상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말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신속하게 타결된 것을 평가**했다.

□ **미중 통상분쟁** 관련, 양측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우려하면서, 한-캐간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마크 마신(Mark Machin) 캐나다연기금(CPPIB) 회장 면담]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캐나다연기금(CPPIB) **마크 마신(Mark Machin)** 회장 면담 계기에, **캐나다연기금(CPPIB) 차원**에서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 제3국 공동투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마신 회장은 우리 측의 한국 내 투자 환경 관련 소개가 캐나다연기금 차원의 한국 투자 검토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 캐나다연기금은 투자다각화(diversification) 차원에서 아시아 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 검토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신규 진출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채원 서기관(☎044-203-59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